

국힘 “공수처 영장 소핑” 총공세 민주 “尹 복귀는 대한민국 파멸”

오늘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여야 “기각” “파면” 막판 공세
조기 대선 중도 확보에도 총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일을 하루 앞둔 24일 여야는 총공세에 나섰다. 여야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상대를 ‘극단의 이념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중도 확보에도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막판 ‘현재 흔들기’를 비롯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재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문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한 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권한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재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법치에 입각한 공정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라며 막판 현재 흔들기에도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여당 지도부가 이처럼 현재 흔들기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현재의 탄핵 심판에 대한 ‘불복’ 노림수에 조기 대선을 고려하더라도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중도·보수’ 행보에도 제동을 걸면서 ‘조기 대선’의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상생 협력으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가 기업들 앞에서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고 친기업 보수적인 코스프레 한다”면서 “그래 놓고 민주당총을 만나 ‘주4일제 해야 한다’고 하고 상속세 최고세율 조정은 ‘조부자 감세’라고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면 돌파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내란의 전모를 실토하라”며 “내란 동조 극우 정당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의 망상에서 깨어나라. 윤석열은 8:0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국회 탄핵소추단은 최종 변론일일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마지막까지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재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회의에서 “최종 변론을 어제 10시간 동안 집필, 11시에 마무리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윤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지를 담았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이준석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개별 재판관의 판단이기도 하지만, 이는 국민의 판단이고 역사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시동’

광주시-관광업계 등 업무협약...전남도 찬성 입장

광주시가 지역 관광업계·전세기 유치 업체들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의 첫 날개를 폈다.

광주시의 국제선 임시 취항 결정에 그동안 광주 민간·군 공항 무안통합 이전을 추진해온 전남도는 일단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무안지역은 “정치적 선택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시는 24일 시청에서 광주관광협회·여행사·전

세기 유치업체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선석현 광주관광협회 회장, 황윤석 다크호스T&G 대표, 강혜련 탐클래스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무안국제공항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광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제선 임시 취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광주관광협회 등은 전세기 및 취항노선 발굴, 관광객 유치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일단 광주공항이 2008년까지 국제선을 운행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무안공항에서 운항해온 일본·중국·대만·베트남 등 근거리 국제선 노선의 임시 취항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선 개항 준비 기간도 일반적으로 세관·출입국·검역·국제선 관제라던 시설, 국내선과의 공간정비, 동선 분리 등에 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이미 국제공항 운영 경험이 있는 광주공항의 경우 2개월 안팎이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2면으로 계속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박대선 모델



안톤 솔츠



안유성 조리명장



김봉중 교수



정지아 작가

고수들의 명강연 ... 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13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 전남 전북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2025년 3월부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13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창간 73주년이라는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게 수강생 여러분이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 교육 문화 예술 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5년 3월-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 뷔페 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5년 3월 10일까지
- 수강료 : 550만원(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23

光州日報社

광주 도로 곳곳에 포트를 보수는 하세월 ▶6면

세계 미술관 기행 -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 ▶18면

KIA 활동하 “선발 경쟁 승자 되겠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당신의 다음 클래스를 향해,
그리고 당신의 여유로운 삶을 향해

The new EQA & EQB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암 전시장 062)714-5001 & 광주 인종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BP 062)942-7200/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일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A 2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5(도상: 5.4, 고속도로: 4.6) 1회 충전거리(km): 367, 공차중량(kg): 1985, 배터리 용량(kWh): 65.9
EQB 300 4M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Wh):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302, 공차중량(kg): 2135, 배터리 용량(kWh): 65.9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이미지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